



**이탈리아관광청 '이탈리아를 기다려' 캠페인**

이탈리아관광청은 이탈리아 여행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올 한해 '이탈리아를 기다려'(#Wait4IT)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탈리아 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활동을 뜻하는 액티브(Active)와 럭셔리(Luxury), 힐링 장소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뷰티 및 웰니스(Beauty-Wellness)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이탈리아관광청은 특히 인플루언서와 잡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자연과 로마,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등 이탈리아 주요 관광도시들의 매력도 함께 소개한다.



**마카오관광청, 막막 승차권 출시**

마카오정부관광청은 마카오경전철유한회사와 함께 무제한으로 경전철(LRT)을 탑승할 수 있는 특별 승차권을 출시했다. '막막 LRT 패스'(MAK MAK LRT Pass)라는 이름의 이 승차권은 마카오 캐릭터 '막막'을 모티브로 개발된 특별 승차권으로 3일 동안 마카오국 제공항과 코타이, 타이파를 오가는 경전철에 탑승할 수 있다. 해당 승차권은 마카오 도착 후 7일 이내 1인당 한 번 발급 가능하며 첫 사용 후 3일간 사용한다. 3일 이후에는 충전해 사용하며 10년간 쓸 수 있다.

**두바이 홍보 영상에 제시카 알바가?**

최근 할리우드 스타 제시카 알바가 출연하는 새로운 블록버스터급 두바이 캠페인 영상이 공개됐다. '두바이 프리젠트'(Dubai Presents)라는 제목의 이번 글로벌 영상은 화제작 '크루엘라'를 연출한 크레이그 질레스피 감독이 만들었다. 영상에는 제시카 알바와 잭 에프론이 티격태격하는 커플로 등장해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과 럭셔리 리조트 주메이라 알 나심, 바다 위의 레스토랑 피어시크 등 두바이의 랜드마크에서 화려한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두바이관광청에 따르면 제시카 알바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영화 장르를 넘나들고 여러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두바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부터 놀랍도록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순간이 감동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플랑드르관광청 "코로나 시대 홈보트 글램핑 어때요?"**

벨기에 플랑드르관광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여행 형태의 하나로 '홈보트 글램핑'(Homeboat Glamping)을 소개했다. 홈보트 글램핑은 개별 보트와 고급스러운 야외 캠핑을 뜻하는 글램핑을 결합한 단어로, 2개 이상의 객실과 거실, 욕실, 냉장고를 포함한 각종 주방 시설, 에어컨과 TV, 세탁기, 와이파이를 물론 주변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테라스 등을 갖추고 있다. 보트는 정박해 있어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고, 큰 규모는 바비큐 시설과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으며, 별도의 주차 공간도 제공된다. 홈보트 글램핑은 비대면 시대에 맞게 스마트록을 이용해 체크인할 수 있으며, 장기 이용자들은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즐길 수 있다.



**체코 온천마을 3곳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체코의 온천지역 3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유럽온천마을'로 등재됐다.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의 제44차 회의에서는 체코 서부 지역의 카를로비 바리, 마리안스케 라즈네, 프란티슈코비 라즈네 등 3곳을 비롯해 모두 7개국 11개 마을이 유럽온천마을로 선정됐다. 유럽온천마을 유네스코 등재에는 체코가 앞장섰으며, 유럽 7개국이 공동신청했다. 이로써 체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명소가 모두 15곳으로 늘어났다. 유네스코가 중요하게 판단한 기준은 전통 온천마을의 건축물과 탕지(湯治·온천 치료법)가 포함된 온천 숙박 프로그램이다. 대부분 천연미네랄 온천을 중심으로 조성된 유럽의 유명 온천마을은 18세기 초~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유럽의 탕지 요법을 현대에 전해주는 유산이다. 체코식 스파 프로그램은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온천마을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 활동과 실내외 스파, 탕지 요법이 결합돼 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다음은 빠에야 월드컵?**

스페인관광청은 9월 20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빠에야 월드컵 2021'을 개최한다. 빠에야 월드컵은 매년 '세계 파에야의 날'인 이날 스페인관광청이 전 세계의 유명 요리사를 초청해 개최하는 미식 축제로, 스페인에서는 TV로 전 과정을 생중계할 만큼 관심이 높은 행사다. 스페인 대표 음식인 빠에야는 팬 또는 냄비를 뜻하는 발렌시아 지역의 전통 언어에서 유래된 말로, 팬에 쌀과 고기, 해산물 등을 넣어 조리한 볶음밥이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한국에서 이상훈 셰프 등 전 세계 20개국 36명의 셰프가 본선에 진출했다.



**엠베서더 호텔, 머큐어 엠베서더 제주 개관**

아코르 엠베서더 코리아는 제주 서귀포시에 머큐어 엠베서더 제주를 지난달 개관했다. 머큐어 엠베서더 제주는 아코르 엠베서더 코리아가 제주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리조트로, 한라산과 산방산을 조망할 수 있으며 18홀의 골프 코스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30분, 중문관광단지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기도 편리하다. 머큐어 엠베서더 제주는 개관을 기념해 객실을 예약하면 인피니티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가 상품을 내놨다.



**“호강스 하며 피부관리 하세요”...롯데호텔, LG전자와 체험마케팅**

롯데호텔과 LG전자는 ‘호텔에서 즐기는 나만의 홈케어’를 콘셉트로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뷰티 인사이드(Beauty Inside) 패키지’를 운영한다. 호텔 숙박 고객은 LG전자의 저출력레이저치료(LLLT) 탈모 치료 의료기기 ‘프라엘 메디헤어’와 눈가 피부 전용 관리기기 ‘프라엘 아이케어’, 바디 전용 초음파 클렌저 ‘프라엘 바디스파’, 세안 전용 초음파 클렌저 ‘프라엘 워시팝’ 등 LG 프라엘 4종을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롯데호텔 서울 이그제큐티브 타워 내 그랜드 디럭스, 프리미어, 주니어 스위트 등 3가지 객실에서 9월 16일까지 진행한다.

**파라다이스호텔  
객실에서 안전하게 ‘룸콕’ 서비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호텔 셰프의 요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썸머 모닝 패밀리 밀박스’ 패키지를 내놨다. 조식을 객실에서 즐길 수 있도록 13종의 요리를 전용 보냉백에 담아 룸서비스로 제공한다. 고객은 볶음밥, 불고기, 소고기 스테이크, 오믈렛, 모차렐라 카프레제 등 13종의 요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주문할 수 있다.



**하이원리조트, 요리사들이 채소 직접 재배**

하이원리조트 호텔 요리사들이 음식 재료로 활용하는 채소를 친환경 농법으로 직접 재배하고 있다. 하이원리조트는 올해 4월 운암정 정원에서 채소 20여 종, 허브, 꽃 등을 재배하는 부엌 정원을 마련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 분해해 거름으로 쓰는 방식으로, 강원랜드 사내벤처인 자원 업사이클 전담팀이 도움을 줬다.



**신세계, 대전에 독자 브랜드 호텔 ‘오노마’ 개장**

신세계그룹 백화점 부문이 대전에서 독자 브랜드 호텔 사업을 시작했다. 신세계센트럴시티는 최근 개장한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신세계백화점 13번째 점포)에 ‘호텔 오노마, 오토그래프 컬렉션 호텔’ 영업을 개시했다. 신세계그룹 내 백화점 부문이 독자 브랜드로 호텔 운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텔 오노마는 글로벌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제휴했다. 193m 높이의 신세계 엑스포타워의 5~7층, 26~37층 등 총 15개 층을 이용하며 171개 객실을 갖췄다.



**목적지와 도착지 다른 새 국제관광비행 뜬다**

에어부산은 김해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을 9월 10일 띄운다. 이어 11일 김포~김해(에어부산), 17일 김포~제주(에어서울), 24일 김포~제주(아시아나항공) 노선에서도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을 운항한다. 국제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의 비행을 말한다. 그동안 관광비행은 인천공항을 출발한 경우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형태로만 운영됐는데, 9월부터 출발 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관광비행을 선보이는 것이다. 에어부산은 11일에는 김포~김해노선을 운항한다.